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 목마른 영혼의 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은총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 위에 세워진 희망이다.

낮 한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깊은 목마름을 만난다.

그러나 그 목마름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  
메마른 마음을 생명의 물로 채운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3/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0,515  
현재 참가 인원 - 103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순 제2주일 (2/28)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6명	80명	186명	152명	47명	521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21	예물 준비 성가 : 217, 342	성체 성가 : 176, 153	파견 성가 : 117
-------	-------------	---------------------	------------------	-------------



# 로올라의 이냐시오(2)

## 영혼을 돕기 위한 사도의 길

1522년 3월 25일, “몽세라”에서 약 15km 떨어진 “만레사”(Manresa) 마을 근처의 동굴로 거처를 옮긴 이냐시오는 이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였다. 그는 기도과 극기와 명상에 몰입하였으며,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다. 거친 음식으로 연명하며 미사와 성무일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하루에 7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그는, 자신의 지난 죄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깊은 고행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영적 체험들은 훗날 『영신수련』을 저술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듬해 2월, 이냐시오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여러 차례 폭풍을 만나야 했고, 전쟁과 페스트가 난무한 지역들을 통과해야 하는 등 1년여에 걸친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다.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로 여겨지던 당시 상황에서 이를 감행한 내적 동기에 대해 이냐시오는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를 알아 그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람들의 영혼을 돕고자 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성지 관리를 맡고 있던 교회 장상이 귀향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파문에 처하겠다는 위협까지 받게 되자, 이냐시오는 팔레스티나에 머물러던 뜻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을 떠나며 그가 새롭게 결심한 것은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라틴어 공부를 시작으로 학업에 전념하였고, 이후 알칼라 대학과 살라망카 대학을 거쳐 파리에서 수학하며 약 11년 동안 학문의 길을 걸었다. 공부에 대한 열망과 함께 가난한 사도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 영적 상담을 시작하였다. 이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종교 재판관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켜, 살라망카, 파리, 베네치아, 로마 등지에서 여러 차례 구속과 심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알칼라에서는 두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고, 동료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투옥되기도 하였다. 파리에서는 성 바르나바 대학 학장에게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들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더욱 굳건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그는 학업 중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영혼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 갔다. 최초의 동료들은 사보이 출신의 페테르 파베르와 나바라 출신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이어 포르투

갈 출신의 시몬 로드리게스와 스페인 출신의 디에고 라이네스 등이 합류하였다. 1537년 6월 24일,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베네치아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그해 겨울,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중 라 스토르타(La Storta)의 작은 경당에서 환시를 체험하였다. 성부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며 "내가 로마에서 너희에게 호의를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환시였다.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예수회"(Compania de Jesus, 예수의 동반자)라 불렀다. 이냐시오는 『예수회 기본법』을 작성하였고, 1539년 9월 3일 교황으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았다. 이어 1540년 9월 27일, 교황 교서를 통해 예수회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이듬해 4월, 초대 총장으로 선출된 이냐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장엄 서원을 하였다. 이냐시오의 지도 아래 예수회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의 생애 동안 회원 수는 이미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고, 교회 쇠신과 복음 선포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냐시오는 또한 수많은 편지를 남겼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약 6,000여 통의 편지들은 수도회의 성장과 교회의 쇠신, 그리고 동료들의 영적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556년 7월 31일, 이냐시오는 로마에서 열병으로 선종하였다. 그는 1609년 교황 바오로 5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그가 설립한 예수회는 오늘날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회 가운데 하나로, 수많은 회원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 선포와 교육, 영적 지도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공지 사항**

**1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매주 금요일 10:00 미사 후  
'재의 수요일' (2/18)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4/2) 미사 전까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사순 판공성사**

● 일시 : 모든 미사 30분 전,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까지 판공 성사가 진행됩니다. 성사 후 고해소 내 바구니에 판공 성사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 헌금(Special Collection)**

● 일시 : 3/14(토) - 3/15(주일)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5 시노드 두번째 모임**

● 일시 : 3/8(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전  
모든 시노드 참가자분들은 각 소그룹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3/8(주일)  
● 음식 봉사 : Mlt / Somerset 구역  
● 메뉴 : 김밥

**7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3/15 (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실

**8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 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10 Daylight Saving Time**

일광 절약 시간제가 8일(주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새벽 2시는 3시로 한 시간 앞당겨지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17,3-7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탈출 17,2).>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 로마 5,1-2.5-8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요한 4,5-42  
<숫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우리들의 정성**

<p><b>[교무금]</b> 노찬규 문상용 송재민 전윤원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이지연 이운선 이명희 유애림 박원규 이태경 오정면 김경자 배정규 최성실 김병철 신경협 안신자 신길하 홍소영 양대석 박애령 서용원 박명완 정순도 전명순 박 찬 김성태 엄미숙 안승근 천기전 황길수 장승연 차상철 안승훈 호명규 이종성 오세영 조항영 김종진</p> <p><b>[교무금 Push Pay]</b> 윤성욱 오영주 강철권 정재열 박소영 윤법영 이종일 최금희 주성택 이항기 유승일 이윤기 이로서 송승혜 맹성호 이진열 김명준      <b>[감사 헌금]</b> 이명희 정순도 방화선 임연주 익명</p>				
---	--	--	--	--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2차 헌금(Northwest Catholic)	감사 헌금
5,530.00	\$9,090.00	\$3,363.10	\$1,458.00	\$6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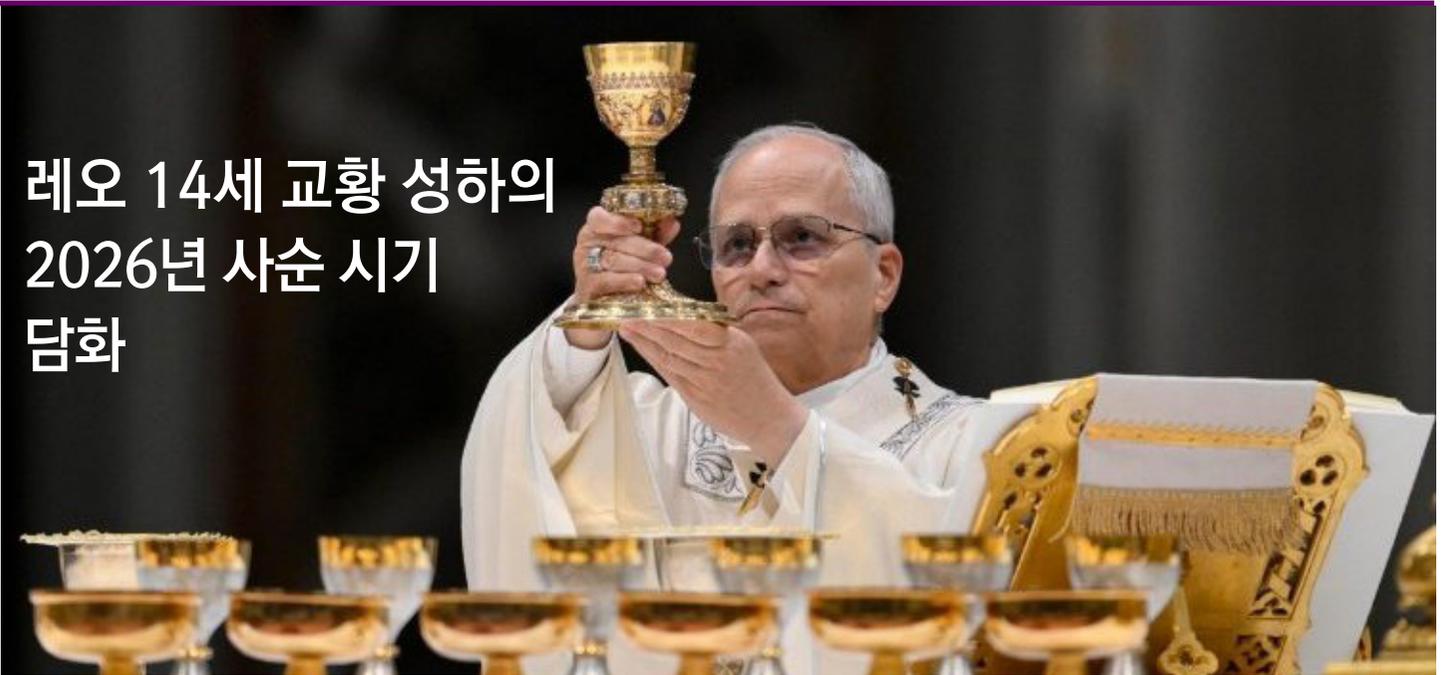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3/26/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2026년 사순 시기 담화



### 경청과 단식: 회개의 때인 사순 시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교회가 모성적 돌봄의 마음으로, 하느님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초대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상생활의 불안과 분심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개로 향하는 모든 길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느님 말씀의 선물과 우리가 그 말씀에 내어 드리는 환대의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이 불러오는 변화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여정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그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완성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쁜 때입니다.

#### 경청

올해 저는 우선 경청을 통하여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찰하고자 합

니다. 기꺼이 경청하려는 자세는 다른 이와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불타는 떨기 속에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경청이 당신을 정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몸소 일러 주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탈출 3,7).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어 종살이하던 당신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해방 이야기는 바로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여겨들으신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당신 마음속 생각들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경청은 우리에게 현실 속 진실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도움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삶과 사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알아듣고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렇게 경청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가짐을 기르려면, 하느님께서 당신처럼 경청하는 법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처지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과 사회,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외침”<sup>1)</sup>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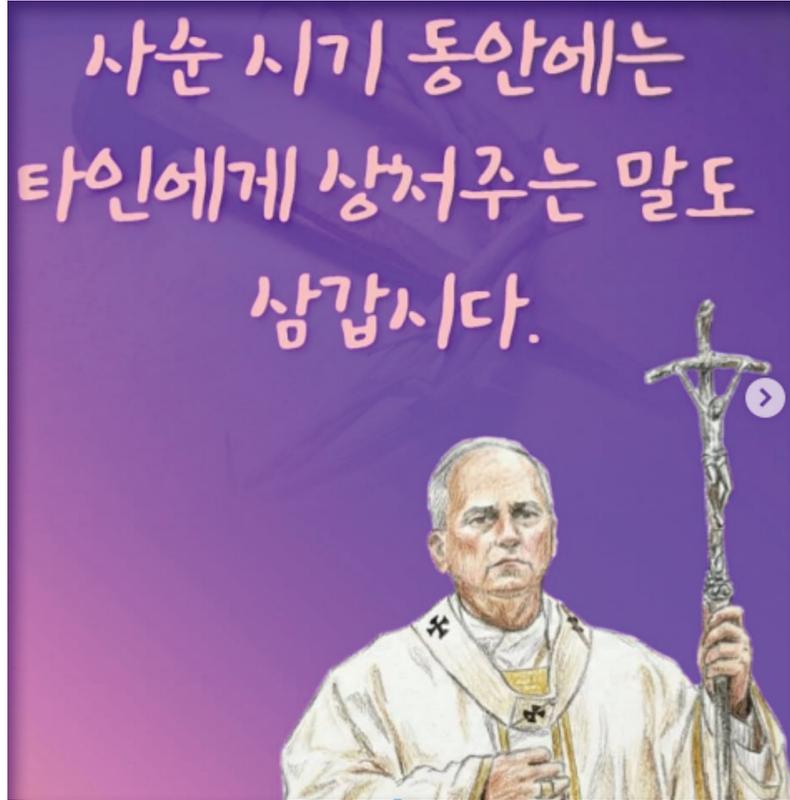
#### 단식

사순 시기가 경청의 때라면, 단식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음식의 절제는 고대의 수덕(修德) 실천이었으며, 회개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 합니다. 단식은 바로 육체와 연관되기에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인식하게 해 줍니다. 더 나아가 단식은 우리가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생생히 느끼게 하고 안주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욕구’를 인식하고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하기에 단식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영적 통찰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는 이 방식을 특징짓는 것, 곧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지상 삶의 여정 안에서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지만, 그 충족은 내세에 속합니다. 천사들은 이 빵, 이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류는 이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기에, 우리 모두는 갈망하면서 이에 이끌립니다. 이처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영혼을 확장시키고 그 능력을 키워 줍니다.”<sup>2)</sup>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단식은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고 정화하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하느님과 선행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단식을 실천하고, 단식이 자만심으로 이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를 믿음과 겸손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단식은 주님과 이루는 친교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우지 못하는 이들은 올바르게 단식하지 않는 것이기”<sup>3)</sup> 때문입니다. 단식은 은총에 힘입어 죄와 악에서 돌아서겠다는 우리의 내적 다짐의 가시적 표지로서, 더 겸소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절제를 수반해야 합니다. “절제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하고 참되게 만들기”<sup>4)</sup>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종종 간과되곤 하는 절제의 한 형태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곧, 우리 이웃을 불쾌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없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거친 말과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비방과 험담을 삼감으로써, 우리의 언어를 무장 해제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터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담론에서, 매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을 헤아려 보고 친절과 존중을 기르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오의 말들은 희망과 평화의 말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 함께

마지막으로, 사순 시기는 말씀 경청과 단식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성경도 여러 방식으로 이 차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는 백성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모여서 함께 울면서 봉독을 듣고 단식에 참여함으로써 신앙 고백과 하느님 경배를 준비하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느헤 9,1-3 참조).

우리 본당, 가정, 교회 단체, 수도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 동안 공동의 여정에 나서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공동 여정에서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과 땅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 삶의 일부가 되고, 단식이 진실한 참회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개는 개인의 양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대화의 질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꺼이 현실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의와 화해에 대한 인류의 목마름과 관련해서

도 무엇이 참으로 우리의 갈망을 이끄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에게 더욱 귀 기울이게 해 주는 사순 시기의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의 언어 사용도 아우르는 그러한 단식의 힘을 청합시다. 그리하여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들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더 넓은 자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공동체들이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고, 경청을 통하여 해방의 길들이 열리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과 열정으로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합시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사순 여정에 진심으로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2월 5일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레오 14세 교황